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9월 2호

◆ 번역 기사

1. 해운 물류업의 미래 세 가지 발전 트렌드
航运物流业未来的三个发展趋势
2. COSCO Shipping Development,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中远海发 : 应对疫情 化危为机
3. 내하항운의 고품질 발전 키워드 : 녹색, 표준화, 복합연계운송
内河航运高质量发展主题词 : 绿色、标准化、多式联运
4. 상무부, 새로운 발전구조 방안 모색 및 경험 축적을 위해 자유무역 시범구 확장
商务部 : 自贸试验区进一步扩容 为加快形成新发展格局探索路径、积累经验
5. COSCO Shipping Ports의 첫 5G 자율주행 트럭 정식 교부
中远海运港口首批5G无人驾驶集卡正式交付, 运营开启在即
6. 잉커우항, Sea & Rail 복합운송 대폭 증가
两位数增幅! 辽港集团营口港海铁联运势不可挡

◆ 기타 동향

7. 하이난 자유무역항, 첫 대륙간 컨테이너 노선 개통
海南自由贸易港首条洲际集装箱航线开通启航
<http://www.zgsyb.com/news.html?aid=570241>
8. 중국 첫 무목적지 크루즈 해상관광 상품 곧 출시
国内首个邮轮无目的地海上游即将启用
<http://www.zgsyb.com/news.html?aid=570062>
9. 징둥물류의 푸톈(普陀)국제수산물 입주로 저우산 해산물 공급사슬 통합서비스 개선 예상
舟山海鲜供应链一体化服务将升级 京东物流入驻普陀国际水产城
<http://www.zgsyb.com/news.html?aid=570011>
9. CMA-CGM, 닝보-저우산항 Sea & Rail 서비스 개시
宁波舟山港再添一条全球前五强船公司专列
<http://www.sasac.gov.cn/n2588025/n2588129/c15544362/content.html>
10. IMO, 6회째 전세계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중국 대응방안 공유
国际海事组织 (IMO) 第六次向全球分享疫情防控中国方案
<https://baijiahao.baidu.com/s?id=1678249797036132584&wfr=spider&for=pc>
11. COSCO Shipping Ports, 베이부완(北部湾) 국제컨테이너 터미널 증자 통한 통합 추진 예정
中远海运港口4.87亿人民币增资北部湾国际集装箱码头 将整合北部湾港、钦州港泊位资源
<http://www.zgsyb.com/news.html?aid=569121>
12. 저우산항과 싱가포르항 벙커유 판매 대전 돌입
舟山港和新加坡港上演船燃销售大战
<http://www.chinaports.com/portlspnews/6062>

작성자 : 장형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 / +86-21-6090-0395)

해운 물류업의 미래 세 가지 발전 트렌드

- 미래의 컨테이너 해운 물류업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트렌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첫째, 소량화물의 증가가 예상되며, 둘째, 코로나 시대 진입으로 응급·비상용 화물 및 적시성을 요하는 화물 또한 증가할 것이며, 셋째, 해운 물류의 디지털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 될 것임
 - 컨테이너 해운회사는 금융기관이나 자동차 제조업체처럼 디지털 복제(디지털 방식으로 사물, 사람, 지역, 시스템, 설비 등을 복제하는 것)를 통해 경제 및 공급사슬의 빠른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Portcast 최고 경영자이자 공동 창업자인 Nidhi Gupta는 컨테이너 해운업과 공급사슬 물류는 현재 발전의 전환점에 놓여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공급사슬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함
 - 현재 물류업계는 공급사슬의 역동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운송업자들은 보다 빠른 온라인 선복예약 시스템 및 동적 가격 책정기능의 개발 외에 항만 혼잡 데이터를 포함한 선대 운영 데이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포워더는 화물운송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자와의 차별을 기할 수 있음
 - 고효율적인 포워더, 지역적으로 특화되거나 세분화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살아남겠지만, 기타 포워더는 대부분 통합될 것으로 예상됨
 - 포워더는 미래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높은 투자 수익을 확보해야하고, 제조사들은 미래에 공급사슬에 대해 더 큰 통제능력을 필요로 할 것임
- Nidhi Gupta는 또 글로벌 공급사슬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나 역내 공급사슬 또한 필요하고, 제조사들은 공급사슬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사슬의 복잡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함
 - 제조사들은 재고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며, 때문에 Just In Time보다는 Just In Case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임
 -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류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소량화물의 증가에 더욱 적응해야 하며, 지역 기반의 재고들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 될 것임
 - 이러한 환경에서 성과지표와 동태적인 의사결정이 KPI(핵심성과지표)에 매우 중요하며, 화물 교부가 점점 빨라지겠지만 이윤은 보다 낮아질 것임

(中华航运, 2020. 9. 14.)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9/t20200914_1343226.shtml

COSCO Shipping Development,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지난 8월 말 발표한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COSCO Shipping Development사는 코로나 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 상반기 매출액은 78억 7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4.24% 증가했고, 순 이익은 19억 5,5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40.17% 증가함
 - 특히, 구미노선의 북항 컨테이너 부족 위기를 기회로 삼은 중원해운의 중고 컨테이너 판매는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컨테이너 평균 단가는 동기대비 12.5% 상승함
- 현재 COSCO Shipping Development사의 선박 임대사업 규모는 세계를 선도하며, 컨테이너 임대사업은 세계 2위, 컨테이너 제조업은 업계 상위에 올라 있음
 - 상반기 선박임대용자 업무 규모의 확대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상승으로 COSCO Shipping Development의 선박임대업 영업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73.36%인 57억 5,200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 상반기 영업매출액(52억 4,400만 위안) 대비 5% 증가한 수치임
 - 해운 및 관련 산업 임대사업 매출액은 25억 6,8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 늘었으며, 이 중 선박경영 임대 매출액 22억 7,400만 위안, 선박용자 임대 매출액 2억 9,400만 위안, 선박 임대 자산의 총 합계는 458억 위안임
- 올해 6월말 기준 COSCO Shipping Development사가 보유한 컨테이너 선박은 총 86척(약 59.8만TEU)으로, 이 중 자가선박이 74척(58.1만TEU)이며, 전체 컨테이너 선박의 평균 선령은 11.8년임
 - 이밖에 벌크선 4척(25.6만TEU, 평균 선령 4.1년)과 LNG선, 석유화학선 등 각종 전용선 80여척을 보유하고 있음
- COSCO Shipping Development사는 2020년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이 느리게 회복될 것이며, 신규 컨테이너 가격과 임대 가격 수준은 안정세를 보이며 작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COSCO Shipping Development사는 지난 8월 CIMC(China International Marine Containers Ltd.)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는 기업의 자산구조를 최적화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 임대, 컨테이너 제조 및 투자와 서비스 업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COSCO Shipping Development사가 원스톱 해운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운물류에 특화된 공급사슬 종합 용자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임

(中华航运, 2020. 9. 22.)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9/t20200922_1343664.shtml

내하운송의 고품질 발전 키워드 : 녹색, 표준화, 복합운송

■ 항운교역공보 제37호(9월 22일판)에서는 “내하운송의 고품질 발전 키워드 : 녹색, 표준화, 복합운송”라는 주제로 특집기사가 실렸음. 이하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음

■ 내하운송의 중요성과 “내하항운 요강”

- 내하운송은 복합운송체계와 수자원 통합 활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개선, 서비스의 대외개방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020년 6월 4일 교통운수부는 교통강국 건설을 위한 <내하항운 발전요강>(이하 <요강>으로 약칭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일조하는 내하운송의 질적 발전 추진 등의 내용을 공개함
- <요강>에서는 2035년까지 현대화된 내하 운송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하운송 인프라, 운송서비스, 녹색개발, 안전감독 등 분야를 크게 개선하겠다고 밝힘

■ 내하 선박 표준화의 지속적인 추진

- 2003년부터 중국 징항(京杭) 대운하와 환강(川江) 및 산샤댐지역, 장강 간선 과 주요 지류에서 선박 표준화 사업을 추진했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요강>에서는 지속적으로 내하 선박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제시. 내하 선형 표준화는 선박 외곽 크기와 연비, 탄소배출 등 일련의 지표들을 통일하여 규범화함으로써 선박 구조를 최적화하고, 운송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을 촉진함
- 2019년 국가는 내하 주요 수계 통과선박에 대한 신규 표준선형 주요 제원을 강제 표준 형식으로 발표하여 수계 또는 역내 운항선박 표준의 통일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주로 안전 및 선원에 관련된 표준을 개정하고, 서비스 표준을 통일하여 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운송조직과 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하기로 함
- 각종 비표준 선박을 정기적으로 폐기해 고품질 선박 발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수송능력 구조를 최적화할 것임. 수문을 통과하는 선박 크기의 규범화는 수문통과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교통운수부는 163가지 표준화한 내하 수문통과 선박 크기 규제를 통해 내하 운송의 병목 문제를 완화하고 내하운송 질적 발전을 촉진함
- 앞으로 내하운송 수요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컨테이너, 자동차 운송 수요 증가는 비교적 빠를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구조 변화에 따른 석탄수송 수요의 하락과 함께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운송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컨테이너, 액화천연가스, 자동차, 화학품 등의 전용선박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경제 사회적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함

■ 강해연운(江海联运)의 복합연계 운송 발전

- <요강>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강해 연계운송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제시함
- 첫째, 강해연운 직통운송 발전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표준을 개선하며, 다양한 유형의 고효율 강해 직통선박을 개발함. 둘째, 장강 간선 및 장강삼각주지역과 상하이 양산항 간 컨테이너 노선, 그리고 닝보-저우산 간 드라이 벌크 및 컨테이너 노선 등 중점 강해 직통노선에 기초하여, 운송 방식과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 강해연운 물류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운송 원가를 낮추고 연계운송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임
- <요강>은 항만을 허브로 하여 복합연계운송을 발전시키고 철도, 도로와 원활하게 연결하여 내하운송의 경제적 영향권을 확대한다고 밝힘. 기술적 표준과 서비스 규범을 통일하여 운송 서비스의 “일체화”와 “원스톱” 및 “단일제”를 실현할 것임

■ 선순환 녹색 발전 방법

- 최근 몇 년간 내하운송 생태환경 보호를 추진함. 선박의 오염방지 설비를 개보수하고, 오염물 수집 및 처리 시설을 구축했으며, 화학품세척소와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부두, 항만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운송선박 시범 운영을 실시했지만 최근 2년간 장강경제벨트 생태계 폭로 문제 등 내하운송 녹색 성장의 길은 요원한 실정임
- <요강>은 내하운송에 있어 녹색항로, 녹색항구, 녹색선박 구축을 추진하여 청정운송의 선순환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함. 또한 2035년까지 이하 세 가지 목표를 이룰 것을 제시함. 첫째, 선박과 항구의 오염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 둘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응용 강화할 것. 셋째, 내하 운송의 생태계 보호와 회복을 강화할 것

■ 포스트 코로나19 국가 과제인 “신형 인프라 건설(新基建)”을 빠르게 추진하여 내하운송 개혁을 추진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함

(中华航运, 2020. 9. 22.)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9/t20200922_1343660.shtml

상무부, 새로운 발전구조 방안 모색 및 경험 축적을 위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

■ 2020년 9월 2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베이징, 후난성, 안후이성 자유무역시범구의 종합 계획과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의 확대 계획 발표회가 열렸고, 이번 자유무역시범구 확대를 통해 새로운 발전구조를 빠르게 모색하고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첫째, 원활한 순환 구조의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베이징 자유무역시범구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기술시장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효 기간 내에 이전하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서 하이테크 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할 것임. 후난성은 성(省)간 경계를 허물고 상호 인증 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성(省)에서 자유무역시범구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기존의 자격을 인정함. 안후이성은 지역 내 기술 등의 거래시장을 개선하고 외자 투자 참여를 허용함. 저장성은 산업사슬의 연계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사슬 공급지 건설을 모색할 것임
- 둘째,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발전 촉진.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력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산업사슬의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사슬의 안전을 보장 할 것. 베이징 자유무역시범구는 임상 시범구를 추진하고 국내 바이오의약 개발사의 국제협력 연구개발 비준 절차를 간소화 할 것임. 후난성은 기업의 기술 수요 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술성과의 생산 전환을 촉진할 것임. 안후이성은 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처분권, 수익권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저장성에서는 데이터 국경 간 유동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데이터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임
- 셋째, 개혁을 심화시켜 새로운 발전에 활력 불어넣기. 자유무역시범구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여 체제 메커니즘의 장벽을 낮추고 재산권과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경쟁 제도를 개선. 베이징 시범구는 국제 디지털 제품의 특허, 저작권, 상업기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수립을 모색함. 후난성은 경쟁정책을 강화하여 공정경쟁 제도 환경을 구축, 안후이성은 인적자원 가치 실현을 목표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저장성은 시공도면 심사제도 등 건설 분야의 심사제도 개혁을 모색할 것임
- 넷째, 수준 높은 개방으로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자유무역시범구가 국제 선진 규범을 받아들이고,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여 국제협력과 경쟁에 탁월하도록 할 것임. 베이징 시범구는 다국적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후난성은 투자성 외투회사 설립 신청 조건을 완화할 것임. 안후이성은 국제규칙에 부합하는 다국적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공유체제를 모색할 것임. 저장성은 중국계 선사의 편의치적선이 Ningbo-저우산항을 이용해 환적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중국 내 연안운송을 허용할 것임

(中华航运, 2020. 9. 22.)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9/t20200922_1343623.shtml

COSCO Shipping Ports의 첫 5G 자율주행 트럭 정식 교부됨

- 2020년 9월 16일, COSCO Shipping Ports의 첫 5G 자율주행 컨테이너 트럭 6대가 후베이(湖北) 둥펑사용차(东风商用车) 공장에서 출시되었는데, 이는 COSCO Shipping Ports의 5G 스마트항만 건설 사업이 한 단계 진전을 거듭할 의미를 지닌다.
- 이 트럭들은 COSCO Shipping Ports의 샤먼위안하이(厦门远海) 터미널에서 시운행 후 정식으로 운영에 투입될 예정이다.
- COSCO Shipping Ports의 펑파밍(冯波鸣) 이사회 회장은 터미널에서 5G 자율주행 컨테이너 트럭의 운행은 자율주행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인 환경으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COSCO Shipping Ports, 둥펑사용차유한회사 및 차이나모바일 상하이산업연구원 등 국유기업의 협력으로 짧은 시간 내에 추진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자율주행 컨테이너 트럭은 스마트 항만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자율주행 컨테이너 트럭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고효율의 작업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항만 건설의 기초가 된다.
- 이번에 교부된 5G 자율주행 컨테이너 트럭은 올해 5월 11일에 발표되었으며, 차량은 둥펑사용차에서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작업에 기반하여 제작한 것으로, 무운전실 순수전동 새시, 양방향 조향시스템, 레이저 레이더, 고정밀 네비게이션 등 기술을 도입함
- 항만의 운영 수요에 근거해 차량관리 플랫폼과 항만 TOS 플랫폼을 연결함으로써 차량에 대한 원격 제어 및 스마트 관리를 가능케 함
- 또한 초대형 운영원가를 낮추고 운영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

(中国港口, 2020. 9. 19.)

<http://www.chinaports.com/portlspnews/5981>

잉커우항, Sea & Rail 복합운송 대폭 증가

-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고 생산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랴오닝그룹(辽港集团) 잉커우(营口)항의 Sea & Rail 복합운송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짐
 - 지난 8월 랴오닝선하홍원물류유한회사(辽宁沈哈红运物流有限公司)의 Sea & Rail 복합운송 수송량은 10.3만TEU로 전월 대비 73.3%나 증가함
 - 올해 1~8월 동 회사의 Sea & Rail 복합운송 실적은 64.9만TEU로 전년 동기대비 26.7% 증가했으며, 동 실적은 중국 전체 Sea & Rail 수송실적으니 14.7%를 차지하는 수치임
- 코로나19의 영향에 맞서 랴오닝선하홍원물류유한회사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화물수요를 발굴에 노력을 기울임
 - 그 결과 올해 1~8월 20피트 HH(Half Height) 오픈 컨테이너 하역량은 전년 동기대비 883%나 증가했으며, 항내 창고에서 작업한 옥수수 작업량은 전년 동기대비 198%, 곡물 수송량은 전년 동기대비 67.9% 증가함
 - 이밖에 정부의 “13·5” 계획에 따른 중국 남방지역의 인프라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회사는 시멘트 수송수요 증가의 기회를 잡아 철도와 도로를 병행 이용하는 방식으로 Door-to-Door Sea & Rail 복합운송 및 원스톱 물류솔루션을 제공함
- 뿐만 아니라 Sea & Rail 수송루트 다각화 및 토털물류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임
 - 동북 내륙지역에 30여개의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 열차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남방지역의 주요 항만과의 협력도 확대함
 - COSCO, ZhongGu 등 선사와의 협력을 추진해 초기의 북방지역 배후지에서 항만까지 연계하던 서비스에서 토털물류서비스로 서비스 방식을 전환함
 - 올해 6월 2.5만톤의 수입 목편이 벌크선으로 잉커우항에 입항했으며, 철도운송과 연계한 토털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도로운송에 비해 고객들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를 거둠
- 랴오닝선하홍원물류유한회사는 향후에서 고객 발굴과 경영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자사의 역량을 강화 및 토털물류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임

(中国水运网, 2020. 9. 27.)

<http://www.zgsyb.com/news.html?aid=570042>